



# 고성의 특별한 사진스팟

## 무도 (시루섬)



면적 704㎡, 높이 약 20m의  
준보전무인도서 무도

사진작가, 여행인플루언서들에게  
알려진 사진 핫스팟이다.

시루떡을 쌓아놓은 형상 때문에  
'시루섬'이라고도 불린다.

해양수산부는 6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인 '무도(시루섬)'를 선정했다.

\* 보전 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건축물 인공구조물 설치, 동·식물의 포획채취, 취사·야영 등)하거나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무도는 육지와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는 약 20m, 면적은 704㎡이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은 세일층의 층리로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모양이 시루떡 모양을 닮아 지역 주민들은 '시루섬'이라고도 부른다.

섬은 육지와 가까워 썰물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며, 해식애, 파식대지 및 해식동굴 등 다양한 지질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섬 상부는 시루떡 위의 팔고물처럼 보이는데 곰솔, 참느릅나무, 소사나무와 갯기름나무, 해국, 담쟁이덩굴, 사철썩 등의 수풀이 자라고 있다.

무도 인근에는 공룡화석 유적지로 유명한 상족암 군립공원과 사진작가들에게 핫스팟(Hot Spot)으로 알려진 까막골 용굴, 코끼리바위 등이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정년이'의 촬영장으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무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경남 고성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